목포서 한·중·일 청소년 스포츠 축제

23~29일까지 육상·축구 등 11개 종목 기량 겨뤄

전남대표 214명도 참가 경기력 향상 등 친선 도모

한국·중국·일본 3개국 청소년들의 스포츠 축제인 제17회 한·중·일주니어종합경기대회가 23일 목포에서 개막식을 갖고 열전 7일에 돌입한다.

대한체육회 주최, 전남도·전남도교육청·전남도체육회·목포시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아시아 3개국간의 청소년 스포츠 교류를 통해 친선 도모와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고교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총 11개 종목에 걸쳐 기량을 겨루게 되는 이번 대회는 육상·축구 등 9개 종목은 목포에서, 농구는 영암, 역도는 보성, 럭비는 강진에서 각각 분산 개최된다.

한국 240명·중국 248명·일본 241명과 개최지 전남대표 214명 등 총 4개팀 943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육상·테니스·정구·탁구·핸드볼·역도·농구·배구·배드민턴 등 9개 종목은 남·여부로 나뉘고, 축구와 럭비는 남자부만 실시된다.

이번 대회 개회식은 24일 오후 6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도체육회는 이번 대회 중 신종플루와 식중독 등 전염병과 식품위생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오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신종플루가 유행함에 따라 의심환자 모니터링 강화와 손소독용품 비치 세면대를 활용함은 물론 대국민 행동요령 안내 및 홍보물을 배포키로 했다.

또한 대회 개최 시기가 여름철임을 감안, 식중독 및 전염병 등이 발병할 것에 대비해 손씻기 강화와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등 특별위생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밖에 경기장과 주변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교통질서 확립 등으로 사고없는 안전대회로 치른다는 방침이다.

한·중·일 주니어종합경기대회는 1968년 한·일고교교환경기대회란 명칭으로 출발한 뒤 1981년에 이르러 한·일고교주니어종합경기대회로 확대되었다가 1993년부터 중국까지 참여하는 3개국 대회로 자리매김 됐다.

전남도와 도체육회는 지난 2007년 제11회 한·일청소년하계스포츠 교류 초청대회와 2008년 파견대회 그리고 이번 대회까지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최근 전남스포츠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주력하고 있다.

서정복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한·중·일 주니어종합경기대회는 자라나는 고교선수들에게 동북아 3개국의 문화와 역사 체험은 물론 스포츠를 통한 경기력 향상 등 대회 취지를 충분히 살려낼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해왔다" 면서 "특히 신종플루와 식중독 예방 등 전염병과 위생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한국 여자청소년핸드볼

亞선수권 10연패 달성

한국여자청소년핸드볼대표팀이 제10회 아시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한국은 18일 밤 태국 방콕에서 열린 풀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홈팀 태국을 39-30으로 여유있게 누르고 4전 전승을 거뒀다고 19일 선수단이 알려왔다.

한국은 1990년 개최된 첫 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10연패를 달성했다. /연합뉴스

수영 최규웅, 200m 한국신

최규웅(19·한국체대)이 수영 남자 평영 200m에서 한국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규웅은 19일 열린 2009 MBC배 전국수영대회 사흘째 남자 대학부 평영 200m 결승에서 2분15초49에 레이스를 끝내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차지했다.

2007년 3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제12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신수종(아산시청)이 세운 종전 한국 기록 2분15초88을 0.39초 줄였다. /연합뉴스

여자 프로복서 김주희

내달 5일 '통합 챔프' 도전

여자프로 복서 김주희(23·거인체육관)가 세계 복싱 무대에서 보기 드문 5대 기구 통합 챔피언에 도전한다.

정문호 거인체육관 관장은 19일 "김주희가 내달 5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파프라탄 룩사이콩(20·태국)을 상대로 WIBA(여자국제복싱협회), WIBF(여자국제복싱연맹), GBU(세계복싱연합) 라이트플라이급 3대 기구 통합 세계챔피언 타이틀 매치를 치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국의 케론 클레멘트(미국·왼쪽에서 두번째)가 19일(한국시간) 독일 베를린 올림피아슈타디온에서 열린 제12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400m 허들경기 결승에서 역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리처즈 여 400m 우승…볼트도 200m 순항중

베를린 세계육상, 클레멘트 男 400m 허들 2연패…美 종합1위 올라서

사냐 리처즈(24)가 제12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미국에 트랙 종목 첫 금메달을 안겼다.

리처즈는 19일 새벽(한국시간) 독일 베를린 올림피아슈타디온에서 벌어진 대회 나흘째 여자 400m 결승에서 49초00초을 찍어 셰리카 윌리엄스(자메이카·49초32)를 제치고 올 시즌 가장 빠른 기록으로 정상을 밟았다. 2005년 대회 은메달리스트인 리처즈는 뛰어난 기량에도 불구, 작년 베이징올림픽에서는 동메달에 머무는 등 유독 큰 대회와는 인연이 없었으나 이번 우승으로 그간 불운을 말끔히 씻어냈다.

리처즈가 우승하면서 미국은 이 종목에서 1993년 절 마일스가 금메달을 딴 뒤 16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자메이카에 남녀 100m 금메달을 모두 내주는 등 단거리에서 고전 중인 미국은 이날 리처즈와 더불어 남자 400m 허들에서 케런 클레멘트가 2연패를 달성하면서 단숨에 금메달 3개로 자메이카, 케냐, 러시아, 영국(이상 금메달 2개)을 제치고 종합순위 1위로 치고 나섰다.

미국의 첫 금메달은 지난 16일 필드 종목인 남자 포환던지기에서 크리스티안 캔트웰이 땄다. 지난해 올림픽에서 2위에 머물렀던 클레멘트는 47초91에 골인, 시즌 최고 기록으로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미국은 자메이카에 단거리 왕좌를 내줬지만 남자 허들 400m 만큼은 세계선수권대회 3연패를 달성해 아성을 구축했다.

여자 창던지기에서는 홈팬의 열렬한 응원을 등에 업은 독일의 슈테피 네리우스가 67m30을 던져 조국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작년 올림픽에서 5위에 머물렀던 네리우스는 1차 시기에서 67m30을 던져 올림픽 챔피언 바보라 스포타코바(체코·66m42)를 따돌리는 이변을 연출했다.

작년 베이징올림픽에 이어 단거리 3관왕에 도전 중인 '번개' 우사인 볼트(자메이카)는 이날 남자 200m 준준결승에서 20초41을 찍고 무난히 준결승에 올랐다.

강력한 경쟁자 타이슨 게이(미국)가 사타구니 부상 악화로 200m를 기권해 우승 가도에 청신호가 켜진 볼트는 20일 오전 2시25분 준결승, 21일 오전 3시35분 대망의 결승 레이스를 벌인다. /연합뉴스

2022 월드컵 유치위원장에

한승주 前 외무장관

2022년 월드컵 단독 개최에 나선 대한축구협회가 유치위원회를 출범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축구협회는 19일 오전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2 월드컵 유치위원회 창립총회를 열고 위원장에 한승주(69) 전 외무부 장관을 추대했다. /연합뉴스

첨단고 심한솔 볼링 은메달

광주첨단고 심한솔이 제23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학생볼링대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심한솔은 19일 전북 익산 한성볼링장에서 열린 대회 남고부 개인종합결승에서 4천908점을 기록, 이재훈(경기분당고·4천930점)에 이어 아쉽게 2위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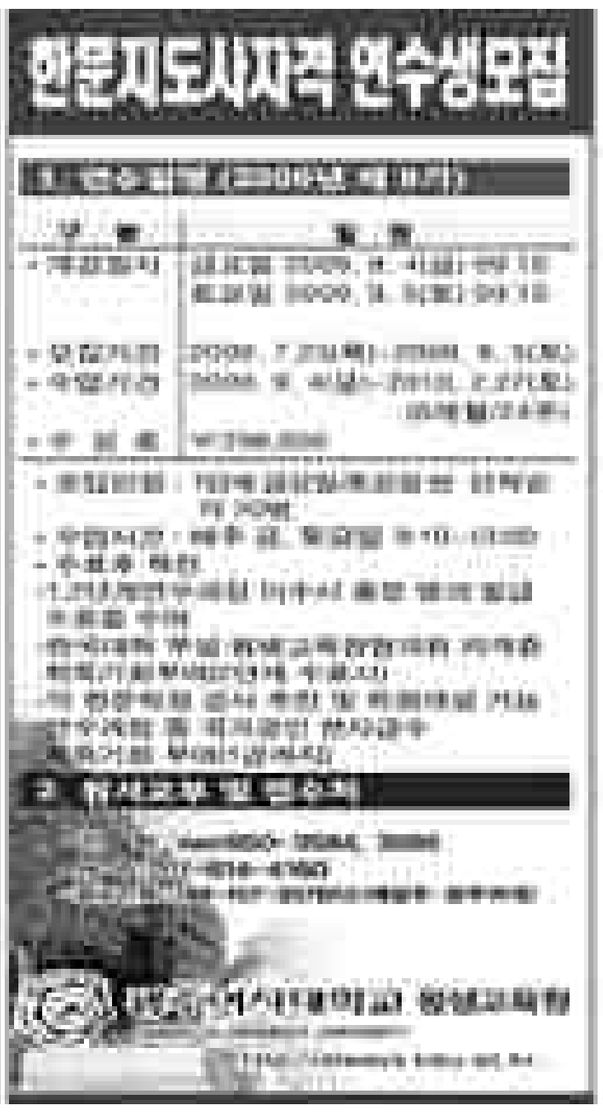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스포츠중계

20일(목)

▲미추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 (12 : 50·Xports)

▲프로야구 〈KIA : 히어로즈〉(18 : 20·MBCESPN), 〈삼성 : 한화〉(18 : 10·KBSN SPORTS), 〈SK : 롯데〉(18 : 15·SBS스포츠), 〈두산 : LG〉(18 : 20·Xports)

21일(금)

▲베를린 IAAF 월드챔피언십 육상선수권 (00 : 45·Xports)